

임진왜란 시기 가덕도의 위상과 조선 수군의 활동

제 장 명*

| 목 차 |

- I. 머리말
- II. 임진왜란 초기 조선 수군의 출전 목표지
- III. 임진왜란 강화기 일본군의 축성지
- IV. 정유재란 초기 조선 수군의 부산진공 경유지
- V. 맺음말

| 국문초록 |

가덕도는 임진왜란 시기 경상우도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섬으로 낙동강과 함께 경상좌도와 경계를 이룬 곳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가덕도는 일본 왜구들이 한반도를 침략할 때 반드시 거치는 곳이자 주둔한 곳으로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한 곳이다. 조선시대 16세기 들어 일본 왜구들의 침입이 극심해지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1544년에는 이 지역에 수군진으로 가덕진과 천성진이 설치되어 운용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가덕도는 전쟁이 일어난 사실을 가장 먼저 인지하고 그 사실을 전파한 최전방 통신수단의 기능도 수행하였다. 임진왜란을 맞아 가덕도는 조선 수군 활동의 중심 대상지로서 전라도-경상도-(가덕도)-부산을 잇는 수로

*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장 / jjm1545@naver.com

에 위치한 요충지였다. 따라서 가덕도는 조선 수군 활동의 주 목표지역으로 중요한 위상을 가졌던 곳이다.

본고에서는 가덕도를 중심으로 한 조선 수군의 활동을 임진왜란 초기와 강화기, 정유재란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임진왜란 초기에는 가덕도 봉수대에서 일본군의 침입 장면을 확인 후 임진왜란 발발 사실을 최초로 알린 지역이다. 그리고 조선 수군의 4차례 출전 목표지로 선정되어 수많은 해전의 배경이 된 곳이다. 특히 임진년 마지막 해전인 부산포해전의 승리를 위해 조선 수군은 3일 동안 가덕도에 주둔하여 작전계획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임진왜란 강화기에 접어들어 한성에서 남하한 일본군이 경상도 남해안 포구와 섬에 왜성을 쌓고 주둔함으로써 가덕도도 일본군에게 장기 주둔의 대상이 되었다. 조선 수군은 부산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 가덕도를 점령해야 하지만 강화교섭 기간이라는 이유와 조선 수군의 전력 약화로 인해 가덕도는 점차 조선 수군의 목표지로부터 멀어져갔다.

정유재란이 발발한 초기 가덕도는 조선 수군이 일본군의 대규모 도해(渡海)를 차단하기 위해 부산으로 진출하는 데 중간 기항지 역할을 하였다. 부산으로의 출전과정에서 가덕도 근해에서 몇 차례 해전이 벌어졌는데, 축조된 왜성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둘 수는 없었다.

이와 같이 가덕도는 임진왜란 시기 조선 수군에게나 일본군에게나 매우 중요한 전략적 위상을 가진 곳으로 인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임진왜란, 정유재란, 조선 수군, 가덕도, 부산포해전, 가덕왜성

I . 머리말

가덕도는 현재 행정구역상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속한 섬이다. 임진왜란 시기에는 경상우도에 소속되어 낙동강과 함께 경상좌도와 경계를 이룬 곳이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가덕도는 일본 왜구들이 한반도를 침략할 때 반드시 거치는 곳이자 주둔한 섬으로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한 곳이다. 그래서 고려시대에도 가덕도에는 수군진을 설치하여 왜적을 방비하는 임무를 수행한 곳으로 기록되어 있다.¹⁾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왜구들의 가덕도 침입은 매우 잦았는데, 특히 16세기 들어 삼포왜란을 시작으로 일본 왜구들의 침입이 극심해 지면서 가덕도는 왜구 침략의 거점(據點)이 되었다. 조정에서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가덕도에 수군진 설치를 논의하여 수십 년이 지난 1544년(중종 39)에 가덕진과 천성보가 설치되어 각각 첨사와 만호가 주 지휘관으로 주둔하면서 활동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가덕도는 전쟁이 일어난 사실을 가장 먼저 인지하고 그 사실을 전파한 최전방 통신수단의 기능도 수행하였다. 특히 임진왜란을 맞아 가덕도는 조선 수군 활동의 중심지 중 대표적인 곳이었다. 가덕도는 전라도·경상도-(가덕도)-부산을 잇는 수로에 위치한 요충지로서 그 지리적 위치와 수군 중간기항지로서 크게 활용되었다. 따라서 가덕도는 조선 수군 활동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위상을 가졌던 곳이다.

한편 침략한 일본군 역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가덕도의 위상을 감안하여 임진왜란 강화기에 접어들면서 왜성을 축조하여 장기 주둔하는 등 주요 기지로 활용하였다. 일본은 근대 시기에도 가덕도에 군사기지를 설치하여 러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수행하는 데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가덕도는 전근대시기 조선의 수군활동과 해상 방어에 매

1) 『高麗史』권 32, 『충렬왕세가』28년(1302)에 의하면, “나는 변강지대를 진무하며 경상도 함포 등지 및 전라도 두 곳에 설치되어 있었던 진변만호부를 관찰 영솔하면서 우리나라의 군관들과 군인들을 징발하여 함포·가덕·동래·울주·죽림·거제·각산·내례량 등 요해지대와 탐라 등지에 파견하여 배치하고 봉수대를 설치하고 배와 군사들을 비밀리에 갖추어 두었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감시 순찰하여 오로지 왜적을 방비하는 일을 주관하여 왔는데...” 라고 되어 있어 이때 이미 소규모의 수군진과 봉수대를 설치한 것으로 보여진다.

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 곳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군사사(軍事史) 연구에 있어서 가덕도에 천착한 논문은 많지 않다. 조선전기 가덕도에서 발생한 왜변과 수군진 축성에 관련한 연구와²⁾ 임진왜란 시기 가덕도에 축성된 왜성에 대한 연구가³⁾ 있으며, 근대 시기 일본이 가덕도에 설치한 군사시설에 관한 연구가⁴⁾ 단편적으로 있을 뿐이다. 더욱이 임진왜란 시기의 수군활동과 관련하여 가덕도를 다룬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본고에서는 임진왜란 시기 가덕도를 중심으로 벌어졌던 조선 수군의 활동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기존 임란 수군사 연구에 있어서 가덕도는 조선 수군 활동의 변방지역으로 인식되었을 정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임진왜란 초기에 가덕도를 지켜야 할 경상우수군이 대규모 일본 침략군에게 대응할 엄두를 내지 못한 채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가덕도에서는 당시의 전황에 영향을 미칠 만큼 의미 있는 해전이 벌어지지 않은 점도 이유의 하나로 들 수 있다.

그러나 가덕도는 분명 조선 수군과 일본군에게 중요한 전략적 위상을 차지하는 곳이었으며 양측에서 이를 활용한 사례가 있었고, 몇 차례 소규모 해전도 있었던 곳이다. 이러한 부문에 의미를 두고 임진왜란 시기 가덕도의 상황과 이곳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조선 수군의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임진왜란 7년간의 가덕도의 위상과 조선 수군의 활동을 연계하여 살펴보면서 편의상 임진왜란 초기, 강화기, 정유재란 시기로 나눠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임진왜란 시기 가

2) 정영현, 「조선 중종대 加德島倭變과 鎭堡의 설치」, 『지역과 역사』 32, 2013, 157~187쪽.

3) 류교열, 「韓半島 南海沿岸의 倭城과 그 築城 意味-가덕도 倭城趾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14, 2002, 179~202쪽

4) 이지영, 서치상, 「가덕도 외양포의 일본군사시설에 관한 연구-군막사 및 포대진지의 구축과정과 건축특성을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70, 2010, 51~70쪽

덕도의 위상을 드러내고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수군 활동사 정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임진왜란 초기 조선 수군의 출전 목표지

가덕도에 수군진을 설치하여 운용한지 48년째 되던 해인 1592년 4월 13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가덕도를 관할하던 경상우수사 원균은 가덕도에서 최초로 인지한 전쟁발발 사실을 전라좌수사 이순신에게 통보하였는데, 1592년 4월 15일 술시(밤 8시경)에 전라좌수영에 도착한 원균의 공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4월 14일 사시(오전 10시경)에 도착한 가덕진 첩절제사 전용린(田應麟)과 천성보 만호 황정(黃珽) 등의 급보에 의하면, <응봉 봉수 감고 이등(李登)과 연대 감고 서건(徐建) 등이 고하기를, ‘오늘 4월 13일 신시(하오 4시경)에 왜선 몇 십 척인지 알 수 없으나 대강 본즉, 90여 척이 본토를 출발하여 경상좌도의 추이도를 지나 부산포로 향하는데 멀고 침침하여 척수를 상세하게 헤아려 볼 수는 없으나 연이어 나오고 있다’고 보고하므로 첩사는 방략에 의거하여 부산과 다대포의 우요격장(右邀擊將)으로서 군사와 전선을 정비하여 바다로 내려가 사변에 대비하는 일로 급히 고한다.>하였습니다.⁵⁾

위에서 보면 경상우수사 관할 최동단 구역인 가덕도에 주둔하던 수군진장들이 최초로 왜란 사실을 인지하고 상관에게 보고한 것이다. 즉 가덕진첩사는 첩입지역인 다대포의 응봉 봉수⁶⁾ 감고로부터 보고를 받

5) 『李忠武公全書』 卷之二 「狀啓一」, ‘因倭警待變狀’

6) 응봉 봉수는 다대포에 설치된 봉수대를 의미한다. 당시 다대포는 경상좌수군 관할이

있고, 천성만호는 휘하 연대 감고의 보고를 받은 후 이를 상관인 경상우수사 원균에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원균은 이 사실을 이순신에게 공문으로 돌린 것이다. 그리고 같은 날 성첩하여 이와 동시에 도착한 경상우수사 원균의 다른 공문에도 “4월 14일 신시(하오 4시)에 도착한 좌수사의 공문에 의하면, ‘가덕진침사의 급보에 ‘왜선 150여 척이 해운대와 부산포로 죄다 향하고 있다.’하였다.”라고 하였다. 이는 제승방략제에 따라 경상좌도의 우요격장을 겸한 가덕진 침사가 사변발생 상황에서의 상관인 경상좌수사에게도 급보를 한 것이다.

그리고 부산포에 적선이 나타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4월 14일 묘시(새벽 6시경) 황령산 봉수군이 경상좌수사에게 보고한 이후였다. 이렇게 볼 때 가덕도는 임진왜란 발발 사실을 가장 먼저 인지하고 이를 알린 최전방 지역이었다.

경상우도 지역이 침탈당한 상황에서 경상우수사 원균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했을까? 경상우수사 원균은 임진왜란 초기 적선 30척을 격파했다고 당시 경상도 상황을 살피고 돌아온 선전관 민종신(閔宗信)이 보고하였다.⁷⁾ 이순신의 전투 상황보고서에도 원균은 경상도 수군을 징발하여 적선을 추격하여 10여 척을 불태웠다고 하였다.⁸⁾

그런데 이러한 원균의 초기 대응 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이 경상도 초유사와 관찰사는 전쟁 발발 한 달여가 지난 즈음에 경상우수영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파악하여 보고하였다. 이를테면 초유사 김성일(金誠一)은 “우수영은 수사와 우후(虞候)가 스스로 군영을 불태우고서 우후는 간 곳을 알 수 없고, 수사는 배 한 척을 타고서 현재 사천 해포(海

지만 경상우도와 침입지역으로 분류되므로 연결한 경상우도의 가덕진 침사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을 것으로 볼 수 있다.

7) 『宣祖實錄』 권 26, 25년 5월 10일(己巳)

8) 『李忠武公全書』 卷之二, 「狀啓一」, 「赴援慶尙道狀」 “本道舟師抄發追擊賊船十隻焚滅”

浦)에 우거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⁹⁾ 관찰사 김수(金睟) 역시 “원균은 수군 대장으로서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내지(內地)로 피하고, 우후를 시켜 관고를 불태우게 하여 2백 년 동안 저축한 물건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져버리게 하였다”고 보고하였다.¹⁰⁾ 인조 대에 편찬된 『선조수정실록』과 류성룡의 『징비록』에도 경상 우수사 원균은 대적할 수 없는 형세임을 알고 전함과 전구를 모두 침몰시키고 수군 1만여 명을 해산시킨 후 육지로 피하려고 할 때 일부 부하들의 강력한 건의를 따라서 전라좌수사에게 구원을 청하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¹¹⁾

이렇게 볼 때 경상우수사 원균이 가덕도를 중심으로 하여 일본군과 교전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시점과 장소가 불명확하여 최초의 해전으로 인정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임진왜란 최초의 해전으로 인식하는 것은 이순신이 이끈 전라좌수군과 원균이 이끈 경상우수군이 연합하여 전투를 벌인 거제도 옥포해전이다. 이에 이순신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당시의 수군활동을 정리하고자 한다.

옥포해전은 경상우수사 원균의 요청에 따라 이순신이 이끈 전라좌수군이 경상도로 출전하여 경상우수군과 합세한 후 적선이 정박하고 있다는 천성·가덕으로 향하여 가던 중에 발발한 것이다. 이를테면 1592년 5월 7일 거제 송미포를¹²⁾ 출항하여 천성·가덕으로 가다가 오시(정오경)에 옥포 앞바다에 이르자 전라좌수군 척후장들이 신기전을 쏘아 급변을 보고하므로 옥포만으로 나아가 첫 전투를 벌여 승리한 것이다. 당시 일본군은 경상우도의 최동단인 가덕도를 침범해 왔으므로 전라

9) 『宣祖實錄』 권27, 25년 6월 28일(丙辰)

10) 위의 책, 6번째 기사

11) 『宣祖修正實錄』 권 26, 25년 5월 1일(庚申); 柳成龍, 『懲毖錄』 권1

12) 송미포의 위치가 거제도의 북단이나 남단이나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 연구 성과에서는 거제도 북단에 위치한 것으로 비정하고 있다(제장명, 『임진왜란 초기해전 연구의 주요 쟁점 검토』, 『충무공 이순신과 한국해양』 3, 2016, 167~168쪽).

좌수군과 경상우수군은 경상우수군 관할 구역인 가덕도를 지키고자 한 것 같다.

옥포해전의 승리 후 합포와 적진포해전에서 적을 물리친 조선 수군은 내친김에 힘을 합하여 천성·가덕·부산 등지로 향하여 적선을 섬멸하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당시 일본군선이 정박하고 있는 곳들은 지세가 좁고 알아서 판옥선과 같은 대선으로는 싸우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라우수사 이억기가 아직 참전하지 않아서 전라좌수군과 소규모의 경상우수군 세력만으로 진격하기에는 전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순신과 원균은 함께 별도의 작전계획을 짜내어 적을 무찌르려고 하던 차에 전라도의 상황에 대한 첩보 보고가 뜻밖에 도착하여 하는 수 없이 각자 배를 돌리기로 하고 5월 9일 오시에 각자 해산하였다.¹³⁾ 조선 수군은 이번 3차례의 해전에서 적선 44척을 분멸하였다.

이후 5월 27일에 사천과 곤양 쪽에 적선이 출몰한 사실을 경상우수사로부터 통보 받은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5월 29일 출동하여 경상우수군과 연합하여 사천과 당포에서 적선을 물리쳤다. 이후 전라우수군도 합류한 가운데 조선 수군은 6월 5일 당항포에서 적선을 분멸한 후 동진하였다. 그리고 6월 7일 이른 아침에 발선하여 웅천땅 중도 해상에 이르러 결전하였다.

이때 천성·가덕에 정박하고 있던 일본군의 종적을 정탐하던 탐망선장 진무 이전(李堉)과 토병 오수(吳水) 등이 왜인의 머리 2급을 베어 돌아와 급보하기를, “가덕 해상에서 왜인 3명이 한 척에 타고 있다가 우리를 보자, 북쪽으로 도망하므로 힘을 다해서 추격하여 다 쏘아 죽이고 머리 3급을 베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순신은 이들에게 각별히 격려한 후 천성 등지로 돌려보내고 정오쯤 왜선 7척이 울포로부터 나와 부산으로 향하여 도망치므로 조선 수군은 이들을 쫓아가 공격하여 모두 분멸하였

13) 『李忠武公全書』 卷之二 「狀啓一」, 「玉浦破倭兵狀」

다. 이러한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조선 수군은 가덕·천성으로 향하다가 경상좌도의 물운대에 이르러 두 편으로 나누어 적을 수색하였다. 그러나 적선이 없음을 확인하고는 술시(오후 8시)쯤 거제땅 온천량의 송진포로 돌아와서 밤을 보냈다.

6월 8일에도 탐망선을 보내 적선의 종적을 정탐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6월 9일 이른 아침에 발선하여 웅천 앞바다에 이르러 결진하고 소선을 가덕·천성·안골포 등지로 나누어 보내고 다시 일본군의 종적을 살피게 하였으나 발견할 수 없었다.

조선 수군은 원래 6월 9일 그대로 부산 등지로 향하여 일본군들을 섬멸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연일 대적을 만나 해상을 전전하면서 싸우느라고 군량이 고갈되고 군사들도 매우 피곤하고 전상자도 많았다. 출전을 주도한 전라좌수사 이순신의 생각은 ‘우리들의 피로한 군사로써 편안히 숨어 있는 적과 대적함은 실로 병가의 좋은 방책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더욱이 양산강은 지세가 매우 좁아서 겨우 한 척의 뱃길 밖에 안되는데다가 적선이 이미 험고한 곳에 거점을 마련하고 있었다. 조선 수군이 싸우려고 하면 적이 출전하지 않을 것이고 부산으로 다가가면 양산강의 적선들이 배후를 에워싸서 협공을 할 우려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번 출전으로 인해 가덕 서쪽에서 마음대로 출입하던 적들은 이미 많은 배들이 불타 없어졌으며, 또 사상자도 많았다. 따라서 산으로 도망하여 잡히지 않았던 적들은 필시 부산 등지로 도주하여 우리 군사의 위엄을 자세하게 알렸을 것이므로 이후부터는 함부로 서진하지 못할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었다.

결국 다시 가덕 등지의 섬들을 탐색하여 적의 종적이 없는 것을 확인한 연후에 귀환하였다. 6월 10일 미조항 앞바다에서 제2차 조선 수군의 출전을 종료하고 각자 본진으로 돌아왔는데, 이번 제2차 출전에서 적선 72척을 분멸하는 큰 전과를 거두었다.¹⁴⁾

조선 수군이 7월 6일 3번째로 출전한 것도 역시 가덕 등지에 적선이 출몰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리하여 전라좌우수군과 경상우수군으로 구성된 조선 수군은 7월 8일의 한산도해전에서 적의 정예수군을 격파하고 7월 9일에 가덕으로 향하려는데 ‘안골포에 왜선 40여 척이 대어 있다’고 탐망군이 보고하므로 이 적들을 토멸할 계획을 상의했다. 그러나 이날은 날이 이미 저물고 역풍이 크게 일어 전진할 수 없어서 거제땅 온천도에서 밤을 지냈다.

7월 10일의 안골포해전에서 적선을 대선 위주로 다수 분멸한 조선 수군은 7월 11일 오전 10시쯤 양산강과 김해포구 및 감동포구를 모두 수색하였으나 적의 종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도 가덕외면으로부터 동래 물운대에 이르기까지 배를 늘여 세워 결진하게 한 후 ‘적선의 많고 적음을 탐망해서 보고하라’고 가덕도의 응봉과¹⁵⁾ 김해의 금단곶 연대 등지로 탐망군을 정하여 보냈다. 그 후 7월 11일 저물녘에 천성보로 나아가 잠깐 머물면서 적에게 우리들이 오랫동안 있을 계획이라는 것을 의심하도록 한 후 야간에 군사를 돌려 12일 사시(오전 10시)쯤 한산도에 도착한 후 진을 파하여 각자 본영으로 귀환하였다.¹⁶⁾ 이번 제3차 출전에서 조선 수군은 일본의 정예 수군을 맞아 80여 척을 분멸하는 큰 전과를 거두었다.

임진년에 조선 수군이 가덕도를 가장 많이 활용한 것은 제 4차 출전인 부산포해전을 치를 때였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상우도 순찰사 김수는 공문을 보내 ‘일본군이 양산과 김해 등지로 내려오는 데, 도망치려는 것 같다’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한산도해

14) 『李忠武公全書』 卷之二 「狀啓一」, 「唐浦破倭兵狀」

15) 여기서 가덕도의 응봉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순신이 임란 초기 원군의 첩보 보고 시 가덕첨사가 응봉봉수 감고 이등의 보고에 따라서 알려왔다고 한 점을 읽고 응봉봉수가 가덕도에 있는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16) 『李忠武公全書』 卷之二 「狀啓一」, 「見乃梁破倭兵狀」

전에서의 패배로 바다를 통한 보급지원이 무산된 일본군이 육지를 통한 서진을 위해 호남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진주성을 공격하고자 북상했던 일부병력을 소집한 것이었다. 그러나 외관상으로는 일본군이 바다를 통해 물러나려고 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김수는 이러한 사실을 이순신에게 전달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전라좌우도 연합함대는 출항을 서둘러 8월 24일에 좌수영을 출발, 제4차 출전을 시작하였다. 25일에는 사랑 앞바다에서 원군의 경상우수군과 합세한 후 당포 앞바다로 이동하여 정박했다. 8월 27일 웅천땅 원포에서 밤을 보낸 조선 수군은 8월 28일 이른 아침에 발선하여 바로 양산과 김해의 두 강 앞바다로 향했다. 이때 창원땅 구곡포의 보자기 정말석이 도망쳐 와서 말하길, “김해강에 머물고 있던 적선이 며칠 동안에 많은 수가 몰운대 바깥바다로 나가는 바, 도망가려는 행적이 현저하다.”하므로 가덕도 북변의 서쪽 기슭에 배를 감추어 숨어있게 하였다. 그리고 휘하 방담첨사 이순신(李純信)과 광양현감 어영담(魚泳潭)을 가덕 외면에 잠복하게 하고, 양산의 적선을 탐망해 오도록 하였다. 탐망군이 신시말(오후 5시)쯤 돌아와 “왜의 소선 4척이 두 강 앞바다로부터 나와서 바로 몰운대로 지나갈 뿐입니다.”라고 보고하므로 천성 선창으로 가서 밤을 지냈다.

8월 29일에는 새벽에 발선하여 날이 밝을 무렵에 두 강 앞바다에 도착하였는데, 동래땅 장림포 앞바다에서 낙오된 왜적 30여 명이 대선 4척과 소선 2척에 나누어 타고 양산으로부터 나오다가 조선 수군에게 발각되었다. 일본군들이 배를 버리고 육지로 올라가는 것을 경상우수사가 거느린 수군들이 도말아 쳐부수고 불태웠다. 그 후 군사를 좌우로 나누어 두 강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그 강어귀의 형세가 좁아서 판옥대선으로 싸울 수 없었다. 어두워질 무렵에 가덕 북변으로 되돌아 와서 밤을 지내면서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조선 수군은 9월 1일 새벽에 발선하여 진시(아침 8시)경 물운대를 지났는데, 이때 강한 동풍과 큰 풍랑이 일어 간신히 전선들을 수습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수군은 동쪽으로 전진을 계속하여 화준구미에 이르러 대선 5척, 다대포에서 대선 8척, 서평포에서 대선 9척, 절영도(영도) 앞 바다에서 대선 2척을 각각 만났는데, 이들 모두를 분멸하였다.

이후, 다시 절영도 주변을 수색하였으나 일본군선을 발견하지 못한 조선 수군은 소선을 보내 부산포를 정탐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부산포에 일본군선 수백 척이 정박 중인 것을 확인하고 곧 총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날 새벽부터 계속된 항해와 몇 차례의 전투를 수행한 뒤였기 때문에 부산포해전이 시작되었을 때는 이미 저물 무렵이었다.

조선 수군은 초량목에서 선봉으로 나온 대선 4척을 맞아 모두 격파하고, 장사진(長蛇陣)으로 돌진하면서 일본 진영을 공격하였다. 일본군은 부산성 동쪽 산에서 5리쯤 되는 언덕 밑 3개소에 대·중·소선을 아울러 약 470여 척이 정박해 있었다. 조선 군선들이 곧장 그 앞으로 돌진하자 배 안과 성 안, 산 위, 굴 속에 있던 적들이 거의 다 산으로 올라가 6개 처에 나누어 결진하여 내려다보면서 철환과 화살을 빗발과 우박같이 쏘았다. 종일 교전한 결과 적선 100여 척을 격파하였다.

본전이 끝난 후 여러 전선의 정예 군사들을 선발하여 육지로 올라가 모조리 섬멸하려고 하였으나 성 안팎의 6, 7개소에 진치고 있는 왜적들 외에 기마병도 있었다. 이에 비해 조선 수군은 말[馬]도 없이 경솔하게 군사들을 육지로 오르게 한다는 것은 만전의 계책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날도 저물었는데 적의 소굴에 머물러 있다가는 앞뒤로 적을 맞게 될 수 있어서 배를 돌려 한밤중에 가덕도로 돌아와 밤을 지냈다. 그리고 9월 2일에 진을 파한 후 각자의 영으로 귀환하였다.¹⁷⁾ 이번 제4차 출전에

17) 『李忠武公全書』 卷之二 「狀啓一」, 「釜山破倭兵狀」

서 적선 130여 척을 격파하는 큰 전과를 거두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진왜란 초기 4차례의 출전 목표지는 가덕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 수군은 처음부터 가덕도를 목표로 출전하였거나 출전 중 가덕도의 상황을 알고 이를 대상으로 진격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출전 마지막에는 가덕도 주변을 정리한 후 각자 본영으로 귀환하는 형태를 되풀이 하였다. 그중 제4차 출전에서는 가덕도에서 3일간이나 정박한 가운데 작전계획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Ⅲ. 임진왜란 강화기 일본군의 축성지

1593년 들어 조선 수군이 처음으로 가덕도로 진출한 것은 웅포해전을 치를 때였다. 1593년 1월 평양성 전투에서 패한 일본군들은 남하하였다. 조선 조정에서는 명군이 일본군을 쫓아 남하하고 있으니 수군도 부산 근처에 머무르고 있는 일본군을 무찌르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취지로 이순신이 이끈 전라좌수군은 1593년 2월 6일 발선하여 8일 전라우수군 및 경상우수군 등과 한산도 앞 바다에서 함께 모여 약속을 하였다. 이후 거제 칠천량과 가덕 앞바다 등지를 왕래하면서 결진하여 명나라 군대가 남하하고 적이 도망쳐 돌아가기를 기다렸다.¹⁸⁾ 와중에 조선 수군은 칠천량과 가덕도 앞바다를 왕래하면서 진형을 형성하고 적군을 섬멸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였다.

그런데 웅천에 주둔한 일본군들이 부산으로 가는 길목을 누르고 험한 곳에 웅거하여 배를 감추고 소굴을 많이 만들었는지라 부득이 먼저 웅천의 적을 공격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2월 10일부터 3월 6일까지

18) 『李忠武公全書』 卷之三 「狀啓二」, 「令水陸諸將直擣熊川狀」

웅천땅 웅포에 있던 일본군들을 7차례에 걸쳐 공격하여 큰 전과를 거두었다.¹⁹⁾

해전 후 후속 조치를 한 후 4월 초에 진을 파하고 본영으로 돌아온 조선 수군은 당시 거제도 동쪽 지역의 전황이 심상치 않음을 우려하였다. 당시 명·일간의 강화를 위한 한성회담의 결과 남하한 일본군들은 해안에 축성하여 요새를 구축하면서 조선 수군의 부산으로의 진출을 막고 있었다. 이순신이 1593년 5월 10일 올린 계본에 의하면 당시 조선 수군의 형편은 매우 절박함을 알 수 있다. 즉 조선 수군이 부산을 치려고 하는데 웅천의 수군이 막고 있어서 웅천을 공격하려고 하니 수군만으로 힘들어 육군의 지원을 요청하였지만 제대로 지원이 되지 못했다.

아울러 수군 상황도 매우 열악하였다. 당시 경상도는 탕패되었을 뿐만 아니라 명나라 군사들을 접대하느라 격군을 보충할 길이 없었다. 겨우 전선을 정비했어도 사부와 격군들이 거의 다 굶주리고 쇠약하여 전선 운용이 어려운 형편이었다. 더욱이 달아나는 적을 차단하려 할 경우 수군 세력이 매우 약할 뿐만 아니라 적이 언제 달아나 돌아갈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러한 조선 수군의 사정은 헤아리지 못하고 조정에서는 모든 전선들을 모아 부산과 동래의 각 진을 포위하고 근처에 정박하여 압박하라는 지시를 되풀이 할 뿐이었다.²⁰⁾ 이에 이순신은 경상도와 전라도의 수군만으로 부족하니 충청도의 수군을 남하시켜 협력하여 적을 무찌를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²¹⁾

당시 조선 수군의 전력은 1593년 5월 14일 현재 전라좌수군은 전선 42척, 정탐선 52척, 전라우수군은 전선 54척, 정탐선 54척으로 전선은

19) 『李忠武公全書』 卷之三 「狀啓二」, 「討賊狀」

20)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서를 5월 14일 거제 건내량에서 받았다(『李忠武公全書』 卷首, 「命 整船剿滅諷書」; 조성도역, 『임진장초』(「배를 정비하여 적을 무찌르라고 명령하는 유서를 받았음을 아뢰는 장계」), 연경문화사, 1996, 127쪽).

21) 『李忠武公全書』 卷之三 「狀啓二」, 「請湖西舟師繼援狀」

겨우 100척에 근접할 정도였다. 그런데 웅천의 적들이 여전히 웅거하여 배를 감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쪽의 산이 바다 어귀를 굽어보고 있고, 지세가 좁고 물이 얕아서 판옥선이 마음대로 출입하면서 공격할 수 없었다. 더욱이 창원·김해·양산의 적들은 숨겨 두었던 수많은 배들로 가덕도 앞바다에 나와서 진치고 웅천의 적과 함께 남북으로 나뉘어 부산포를 가로막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 수군으로서는 이들을 그대로 두고 부산으로 깊이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므로 부득이 육군이 웅천을 공격하여 적들을 바다로 몰아내어야만 쳐서 무찌를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²²⁾

이순신의 건의가 받아들여져서인지 1593년 6월 충청수군이 합류함으로써²³⁾ 이제 하삼도의 모든 수군이 한산도에 모여 결진하였다. 그렇지만 초기에 합류한 충청수군은 겨우 몇 척에 불과할 정도로 규모가 소략했다. 어쨌든 그해 8월부터는 삼도수군통제사제도가 만들어져²⁴⁾ 초대 통제사에 이순신이 임명되어 삼도수군을 통합 지휘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일본군들도 거의 남하하여 거제도를 포함한 동쪽 지역에 많은 성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곳의 구체적 사정을 일본군에 포로가 되었다가 도망해 돌아온 고성수군 진신귀(陳新貴)의 문초내용을 토대로 짐작할 수 있다.

장문포와 송진포 등지에도 산봉우리를 깎아 평평하게 하고 아울러 토성을 쌓고서 성 안에 집을 지었으며 배들은 대·중선을 아울러 혹은 100여 척, 혹은 70여 척이 언덕 아래 벌여 있었다. 뿐만 아니라 웅포의 서쪽 산봉우리와 제포의 북쪽 산과 안골포의 서쪽 산봉우리 등지

22) 『李忠武公全書』 卷之三 「狀啓二」, 「請湖西舟師繼援狀」

23) 『亂中日記』 계사년 6월 1일

24) 선조수정실록에는 통제사제도가 계사년 8월부터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선조수정실록』 권27, 26년 8월 1일(壬午)), 통제사 임명 교서를 보면 이순신이 초대 삼도수군통제사에 공식적으로 임명된 날자는 9월 12일이다(이수경, 「임진왜란 시기 이순신의 통제사 임명일자 검토」, 『이순신연구논총』 32, 2020, 38쪽).

에도 역시 토성을 쌓고 성 안에 집을 지었다. 대어 있는 배들은 언덕이 가려져 바라볼 수 없었으나 제포 선창에는 대·중선이 무수히 벌여 대어 있었으며, 그밖에도 그들 본국과 가덕으로 향하는 옹포와 거제의 배들이 연속하여 끊이지 않았다.²⁵⁾

위 기록을 통해 보면 이 시기부터 가덕도는 일본군의 점령지에 완전히 포함되어 버렸다. 다시 말해 거제도의 장문포·송진포 등의 주요 기항지와 옹천의 제포·옹포·안골포 등지에 왜성이 구축되어 가덕도를 외곽에서 방어하는 형태가 갖춰진 것이다. 이제 조선 수군이 가덕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거제와 옹천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의 공격을 감수해야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조선 수군의 공격목표는 이제 가덕도가 아니라 거제도 이서 지역의 경계인 견내량을 최동단으로 하여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임진왜란 초기 가덕도에 근무하던 수군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임진왜란 초기에는 초유사 김성일이 진(鎭)을 버린 수령·변장 등을 수합했을 때 가덕 첨사 전용린(田應麟)이 스스로 나타나므로, 군관을 거느리고 곽재우와 함께 정암진(鼎巖津)을 지키게 하였다.²⁶⁾ 그 밖의 진장들 중에는 군관 김경옥(金景郁)의 활약이 드러났다. 즉 임진년 8월에 비변사에서 “가덕 첨사의 군관 김경옥은 전후 세운 전공이 매우 많았는데 적을 베다가 죽었습니다.”라고 하면서 표창할 것을 건의한 데서 알 수 있다.²⁷⁾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행적은 알 수 없었다. 아마도 대부분 초기에 흩어졌거나 적에게 포로가 되었거나 아군에 편입된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가덕도에 입방하는 일부 수군들의 행적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보인다. 즉 1593년 8월 현재 경상우수영 군관이었

25) 『李忠武公全書』 卷之三 「狀啓二」, 「陳倭情狀」

26) 『宣祖實錄』 권 27, 25년 6월 28일(丙辰)

27) 『宣祖實錄』 권 29, 25년 8월 7일(甲午)

던 제만춘(諸萬春)이 일본군에 포로로 붙잡혔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후 돌아오면서 파악한 내용 중에 가덕도에 근무하던 수군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

양산땅 사대도(蛇代島)에 이르니 천성과 가덕의 방비하는 수군이 무려 400여 호나 살며, 왜적 20여 명을 ‘추장’이라 칭하면서 농사짓고 추수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고 있는데 8월 10일 웅천땅 적항역 앞을 지나서 상륙하여 13일에 본가에 돌아왔다.²⁸⁾

위 기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전 초기에 붙잡힌 가덕도의 수군들이 섬에서 일본군에게 부역하면서 살고 있었다. 이러한 형태는 다른 곳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 어쨌든 일본군의 축성 움직임과 거제도 동쪽 지역에 일본군의 밀집 주둔으로 인해 조선 수군은 부산 쪽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세력 규모의 절대적 차이 때문이었다. 더욱이 명군은 강화를 핑계로 일본군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조선 관군들은 물론²⁹⁾ 조선 수군도 압박하고 있었다.

이렇게 강화교섭이 진행되고 있을 무렵인 1594년 3월초에 일본 군선 30여 척이 당항포에 나타났다. 이에 조선 수군은 총 동원되어 적의 퇴로를 막으면서 어영담을 조망장으로 임명하여 3월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 교전을 벌여 적선 31척을 분멸하였다. 그리고 해전이 끝난 후 전 수군함대가 한 바다에 모여 포를 쏘면서 시위하였다. 이것은 당항포에서 배를 버리고 육지로 올라간 적들을 완전히 소탕하지 못한 울분을 토로한 것이었다. 이에 영등포·장문포·제포·웅천·안골포·가덕·천성 등지에 웅거하였던 일본군들은 조선 수군이 공격해 올까 겁내어 복병하고 있던 막집을 제 손으로 불태우고 무서워서 굴속으로 은둔하는 상황

28) 『李忠武公全書』卷之三「狀啓二」,「登聞被擲人所告倭情狀」

29) 吳希文, 『瑣尾錄』권2, 기사 7월 8일자

이 발생하기도 하였다.³⁰⁾

그러나 실제 조선 수군이 가덕도 쪽으로 다가갈 수는 없었다. 해전이 끝난 후 1개월 남짓 지났을 무렵 거제현령 안위(安衛)가 보고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적세를 탐지하려고 사사들을 거느리고 경내의 국사당봉 머리에서 바다를 바라보았는데, 옥포 앞바다의 양주암에 있던 왜선 6척 중에서 3척은 대어놓고 해산물을 채취하고 2척은 가덕도로 향하고, 1척은 영등포로 향하는데, 고을 경내의 동서 각처의 육지로 돌아다니는 적들은 곳곳에서 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그날 멀리 바라보니 왜선 100여 척이 각각 대 끝에 돛을 달고 본국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제1진은 부산 전양으로 향하고 또 1진은 김해강과 웅포로 향하였으며, 안골포 뒷목에는 전에 본 일이 없는 굉장히 큰 진영이 분명히 바라다보이고, 영등포와 장문포에 진치고 있는 적들은 가감이 없습니다.³¹⁾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거제도 동쪽 지역은 완전히 일본군들이 장악한 가운데 가덕도 역시 그들의 주 기지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거제도 주둔 일본군에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한 겸사복 김응지(金應之) 등의 보고에 의하면 일본군의 기지는 웅천 입암에 1진, 웅포에 2진, 안골포에 3진, 가덕에 1진, 김해에 1진, 죽도에 1진, 두모포 및 동래 부산 등지에 5진, 영등포 및 장문포를 아울러 총 18진이 머물고 있었다.³²⁾ 이렇게 볼 때 가덕도에도 일본군의 기지가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가덕도에 쌓은 일본군의 성은 본성과 지성 2군데가 있는데, 현

30) 『李忠武公全書』 卷之四 「狀啓三」, 「唐項浦破倭兵狀」

31) 『李忠武公全書』 卷之四 「狀啓三」, 「哨探倭兵狀」

32) 『李忠武公全書』 卷之四 「狀啓三」, 「陳倭情狀」

재 가덕도의 놀차동에 있는 본성은 고바야가와 타카카게(小早川隆景)가 축조하였고, 성북동에 있는 지성은 고바야가와 히데카네(小早川秀色), 다치바나 무네토라(立花統虎), 다카하시 무네마스(高橋統增), 쓰쿠시 히로카도(筑紫廣門) 등이 함께 쌓았다.³³⁾

여기서 가덕도의 왜성 축조 과정에 대해 살펴보자. 일본군이 조선에서 왜성을 축성하게 된 것은 1593년 2월 이후 서울에서 철수를 결정하면서부터였다. 이는 일본군이 한성을 철수하기 직전인 4월 12일에 도요토미가 철수 후 남해 연안에 약 20여 곳의 성곽을 축성하고 각기 무기와 식량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장기적인 방어전에 임할 것을 지시한 데서 알 수 있다.³⁴⁾ 그 범위는 침략의 거점인 부산 본영을 중심으로 동은 서생포, 서는 거제도까지 각 성곽이 연결·제휴하는 형태로 방어선을 형성하는 것이었다.³⁵⁾ 일단 성곽이 축성되고 나면 강화교섭 중에 수비병을 제외한 병력을 일본 본토로 철수시켜 최소병력으로 주둔을 지속할 수 있으며, 본토로부터 조선에 대한 보급도 줄일 수 있으므로 유효한 계획이었다.

1593년 4월 22일에 도요토미는 모리 테루모토(毛利輝元)에게 조선 수군의 활동에 대항하기 위하여 주요 항구에 성곽을 축성할 것을 명령했는데, 가덕도에 축성이 시작된 것은 바로 이 무렵으로 보인다. 가덕도 축성의 주된 목적은 첫째, 가덕도 북측 수로를 제압하여 내륙침입 시 병참기지 부산에서 낙동강 수로를 거쳐 내륙으로 이동하는 일본군의 보급로를 확보하는 것. 둘째, 인접한 안골포성과 연계하여 웅천방면의 조선 수군을 방어하는 것. 셋째, 부산 이외의 보급기지 확보. 넷째, 일본수군의 항만 방어. 다섯째, 조선 수군의 항만 이용을 저지한다는 점 등을 생

33) 가덕도의 왜성 축성과 관련해서는 류교열, 앞의 논문에 자세하다.

34) 『毛利家文書』 3』

35) 류교열, 앞의 논문, 186쪽.

각할 수 있다. 가덕도 북쪽의 수로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수심이 얇으며, 게다가 조류가 신속하여 거대한 판옥선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 수군의 운동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지역으로 소형전선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 수군 측에서 볼 때 유효한 지역이었다고 볼 수 있다.³⁶⁾

이런 의미에서 축성된 가덕도 왜성에 도요토미는 7월경 5천명의 병력을 본성과 지성에 주둔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그리고 윤 9월 25일경에는 가덕도 축성이 완료된 것으로 약 5개월간의 축성기간이 걸린 것으로 보아진다.

한편 1593년 3월부터 재개된 강화교섭은 그 후 '94년과 '95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되었는데, 교섭단계에서 명은 일본군의 조선 주둔에 불만을 표했으며, 철수하지 않는다면 강화에 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이에 일본군은 3차에 걸친 철수계획을 추진하였으나 마지막 단계로 설정된 가덕도 왜성은 파괴는 물론 철수도 하지 않았다.

가덕도 왜성은 안골포왜성과 해상 약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으며, 가덕도 북측 수로를 통과하는 조선 수군의 행방을 관찰할 수 있도록 위치해 있다. 그리고 놀차리는 천연적으로 비교적 수심이 얇은 만이 형성되어 있어 특히 소형 군선이 주체인 일본 수군이 정박할 수 있기에 적합한 곳이다. 여기에는 대형 판옥선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 수군이 만내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자유로이 거동할 수 없을 뿐더러 비록 장갑이 두터운 소형 선박이 진입한다 해도 좁은 만의 입구를 통과할 때 항만에 임박한 산위에서 협공을 가할 수 있도록 입지해 있다.

이렇게 일본군이 가덕도 북단에 왜성을 쌓음으로써 조선 수군은 임진왜란 초기 부산포해전 때와 같은 가덕도 북단 수로를 이용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조선 수군이 부산 쪽으로 이동할 때 가덕도의 남단을 경유하게 되었다.

36) 류교열, 앞의 논문, 188쪽.

조선 수군이 가덕도 쪽으로 갈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전염병과 기아 등으로 전력 손실이 너무 막심한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통제사 이순신은 조정에 건의하여 유능한 의원을 특명으로 내려 보내 구호해 줄 것을 청하였지만,³⁷⁾ 전력 손실은 매우 엄청난 규모였다. 다음 <표1>을 참고할 수 있다.

<표1> 1594. 1~4월까지의 조선 수군 사상자 수³⁸⁾

지역	사망자	질환자	전투손실
전라좌도	606(전서 406)	1373	1979(1779)
전라우도	603	1878	2481
경상우도	344	222	566
충청도	351	286	637
3도종합	1904(1704)	3759	5663(5463)

※ 출처 : 이순신의 장계 내용을 종합한 것임

위와 같이 갑오년 전반기에 5천여 명의 군사가 손실을 입음으로써 전선을 운용할 병력이 크게 부족한 시점에서 대규모의 세력을 가동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이후 강화교섭 기간 동안 조선 수군은 가덕도로 진출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IV. 정유재란 초기 조선 수군의 부산진공 경유지

1596년 9월에 임진왜란 강화회담은 결렬되었고 일본군은 재침을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정유년 1월에 일본군 선발대가 다대포에 상륙함으

37) 『李忠武公全書』 卷之四, 「狀啓三」, 「請送醫救癘狀」

38) 김강식·제장명 공저, 『경남의 임진왜란사』, (사)21세기이순신연구회, 2009, 146쪽.

로써 정유재란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정유년 일본의 재침과 관련하여 조선 수군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일본군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측에서 통사 요시라(要時羅)를 통해 보내 준 정보를 통해 시작되었다.

이들테면 1월 11일에 요시라가 경상우병사 김응서에게 고니시의 뜻을 전달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이들테면 일본군 선봉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가 7천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1월 4일에 이미 대마도에 도착해 있는데 순풍이 불면 곧 바다를 건널 준비를 하고 있었으므로 나오기 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³⁹⁾

이러한 내용을 김응서가 보고하자 선조는 황신을 보내어 이순신에게 비밀히 유시하였다. 그러나 이순신은 ‘바닷길이 험난하고 왜적이 필시 복병을 설치하고 기다릴 것이므로 전함을 많이 출동시키면 적이 알게 될 것이고, 적게 출동하면 도리어 습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거행하지 않았다.⁴⁰⁾

그런데 이러한 장계가 올라온 지 이틀 후인 1월 13일에 사도 도체찰사 이원익은 가토가 전선 2백여 척으로 다대포에 도착하여 정박하였다고 보고하였다.⁴¹⁾ 그리고 비슷한 내용으로 경상도 제진위무사 황신은 ‘1월 12일에 가토의 배 280척이 바다를 건너 서생포로 향하고 있다’는 보고를 하였다.⁴²⁾

선조는 일본군의 선발대가 부산에 도착함으로써 전쟁이 재발했다고 판단하였다. 선조는 일본의 고니시 측이 제공한 고급 정보인 가토의 도해 사실을 통제사 이순신에게 전달했음에도 일본군의 도해를 막지 못한

39) 『宣祖實錄』 권84, 30년 1월 19일(庚戌)

40) 趙慶男, 『亂中雜錄』 선조 30년 2월 1일조; 李肯翊, 『燃藜室記述』 권17, 「宣祖朝故事本末」, 「丁酉倭寇再出」

41) 『宣祖實錄』 권84, 30년 1월 21일(壬子)

42) 『宣祖實錄』 권84, 30년 1월 22일(癸丑)

책임을 이순신에게 물었다. 그 결과 그해 2월 6일에 이순신의 통제사 파직과 체포를 명하였다.⁴³⁾

어쨌든 가토가 지휘한 선발대가 부산 다대포에 상륙함으로써 정유재란이 일어난 것이다. 이후 일본군의 고니시 부대가 도해하여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 지역 여러 곳에 주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597년 2월 현재 일본군 주력이 있는 서평포와 죽도를 제외하고도 부산에는 일본군 7천여 명과 전선 70여 척, 안골포에는 군사 1천여 명과 40여 척, 가덕도는 5백여 명과 20여 척이 주둔하고 있었다.⁴⁴⁾

정유재란 초기 조선 수군이 부산 쪽으로 진공하는 작전은 크게 4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째는 통제사 이순신이 지휘한 작전으로 2월 10일~12일 중에 이루어졌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군의 도해는 막지 못했지만 일본군이 도해하여 상륙한 부산지역과 경상도 연해안에서는 도원수와 통제사, 그리고 병마절도사간의 협의를 통해 대일본군 공격 전략이 수립되고 있었다. 이는 고니시 측에서 요시라를 통해 전달된 가토군 공격을 유도하는 후속 정보에 의한 것이었다. 이에 도원수 권율의 주도 하에 통제사 이순신은 경상우병사 김응서 등과 논의하여 부산에 선발대로 건너와 정박해 있는 가토 군을 공격하기 위한 작전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1597년 2월 10일 아침에 조선 수군은 전선 63척으로 장문포를 떠나 가덕도를 거쳐 미시(오후 2시경)에 부산 앞바다로 나가 정박하였다. 이때 조선 수군의 정박지에 있던 일본군이 병력 3백여 명을 내어 저항하려고 하여 날이 저물 무렵에 절영도로 후퇴하여 정박하자 일본군들도 퇴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토 군에 대한 공격이 순탄치 않음을 인식한 작전 지휘부에서는 후일을 기약하고 2월 12일에 귀환하게 되었다. 그런데 조

43) 『宣祖實錄』 권85, 30년 2월 6일(丁卯)

44) 『宣祖實錄』 권85, 30년 2월 23일(甲申)

선 수군이 이날 웅천 원포로 퇴진하기 위해 가덕도 동쪽 바다에 도착했을 때 급수(給水)를 위해 수줄 몇 명을 가덕도에 하륙시켰다. 이때 일본군이 숨어서 엿보고 있다가 초동 1명을 쳐서 죽이고 5명을 잡아가는 사건이 발생했다.⁴⁵⁾

가덕도에서 조선 수군이 피랍된 데 대해 이순신은 “가덕도의 왜적이 우리 초동을 죽였으니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일본군을 공격하였다. 이때 일본군은 육지의 험한 곳에 들어가 숨어서 방포하였다. 조선 수군은 안골포 만호 우수(禹壽)가 지휘하여 항왜 17명을 자신의 배에 승선시켜 교전한 결과 일본군 10여 명을 죽였고, 자신도 일본군 1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그 후 날이 저물 무렵에 영등포 앞바다에 돌아와 정박하였다.

부산 진공작전을 마치고 한산도에 도착한 이순신은 2월 26일자로 한산도진에서 기다리고 있던 의금부 관원에 의해 압송되어 한성으로 향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후임으로는 전라병사였던 원균이 임명되었다.

두 번째 부산으로의 진공은 통제사 원균의 주도 하에 6월 18일~19일 간에 이루어졌다. 이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시 조정에서는 가토의 배 5백여 척이 울산 해구에 정박한 채 움직이지 않는 이유로는 군량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그렇지만 추수를 하고 나면 반드시 움직일 것이며 7~8월 사이에 움직일 것으로 예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군이 움직이기 전에 가토 군을 치자는 건의가 있었지만⁴⁶⁾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실행에 옮길 수 없는 형편이었다.⁴⁷⁾

45) 『宣祖實錄』 권86, 30년 3월 20일(庚戌)

46) 『宣祖實錄』 권87, 30년 4월 13일(癸酉)

47) 첫째는 명나라와 일본 간의 강화회담 중 마무리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명나라에서 공격을 하지 말 것을 주문한 상태라는 점과, 두 번째는 부산 쪽에 위치한 일본군을 수륙으로 합공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병력만으로 부족하였으므로 명나라로부터 충분한 원군이 도착해야만 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선 수군이 스스로 일본군을 몰아낼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부산 쪽으로 왕래할 때 안골포와 가덕도에 적이 주둔하고 있어서 방해받고 있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통제사 원균은 일본군을 공격하기 위한 수륙합공책을 조정에게 건의하였다. 원균은 일본군이 가덕도, 안골포, 죽도, 부산에 주둔하여 성세는 의지되나 그 수가 수만에 불과하며, 특히 안골포와 가덕도의 적은 3~4천 정도이므로 해볼만 하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30만 육군을 동원하여 안골포의 적을 공격한다면 수군이 이들을 공격하기는 매우 쉬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래서 4~5월 사이에 수륙양군을 대대적으로 출동시켜 한번 승부를 겨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⁸⁾

이에 대해 비변사에서는 안골포는 육지와 이어져서 육군이 진격할 수 있겠지만, 가덕도는 바다에 있어 수군이 아니면 진격이 불가능한 점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30만의 정병은 4~5월 내에 소집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들었다. 선조는 원균의 계획이 어렵다고 생각하면서도 시험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⁴⁹⁾ 이에 대해 도원수 권율은 적의 상태가 원균이 말한 바와 같으나 선불리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하면서 반대하였다.⁵⁰⁾

이런 상황을 알았는지 일본에서는 안골포와 가덕도에 전력을 증강시키는 노력을 기울였다. 도원수 권율의 보고에 의하면 5월 4일에 시만(時萬)이란 이름의 왜장이 30여 척의 배를 거느리고 곧바로 부산 앞바다에 도착하여 순풍을 이용해 5일에 가덕도로 갔으며, 가덕도와 안골포 등의 진영은 조선 사람의 출입을 일절 금지시키고 들켰다 하면 모두 살해할 정도로 비밀리에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었다.⁵¹⁾

48) 『宣祖實錄』 권87, 30년 4월 19일(己卯)

49) 『宣祖實錄』 권87, 30년 4월 22일(壬午)

50) 『宣祖實錄』 권88, 30년 5월 8일(戊戌)

51) 『宣祖實錄』 권88, 30년 5월 18일(戊申)

한편 이 시기 도체찰사 이원익은 5월 12일에 일본군의 정세에 관해서 보고하였다. 일본이 대군으로 올 6~7월 사이에 바다를 건너와 우선 전라도를 약탈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음을 보고한 것이다.⁵²⁾

이에 대해 선조는 대신과 비변사 유사당상을 인견한 자리에서 수군의 효율적인 운용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류성룡은 수군이 거제도 옥포에 전진하여 가덕도 외양을 통하여 부산 앞 바다로 진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안골포와 죽도에 웅거하고 있는 일본군의 위협을 받지 않고 부산으로 진출하는 방법인 것이다. 이에 대해 이항복은 현지 수군장수들은 외양에 배를 띄울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임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자 류성룡은 수로로 부산과의 거리는 1식경에 불과하므로 50척의 배로 번갈아 드나드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선조는 기회를 보아 거사할 것을 주문하였다.⁵³⁾

이러한 시점에서 일본군의 본격적인 도발에 관한 정보들이 6월초를 전후하여 경상우병사 김응서와 도원수 권율을 통해 속속 보고되었다. 그 주요 내용들을 요약하면, 일본이 50만의 군대를 동원하여 그중 30만의 병력을 조선에 도해시켜 전라도와 제주도를 유린함은 물론 의령·경주의 산성을 공파(攻破)하겠다는 것이며, 그 시기는 6~7월 중이라는 것이었다.⁵⁴⁾

당시 일본 군선들은 연달아 바다를 건너와 가덕도·안골포·부산포·서생포에 나누어 주둔하고 있었다.⁵⁵⁾ 따라서 일본군 주력부대들의 재침입이 도래했다는 사실은 확실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조정의 부산 앞바다 진공작전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도체찰사와 도원수의 지시를 통제사 원균이 거부하고 있었기 때

52) 『宣祖實錄』 권88, 30년 5월 12일(壬寅)

53) 『宣祖實錄』 권88, 30년 5월 15일(乙巳)

54) 『宣祖實錄』 권89, 30년 6월 14일(癸酉)

55) 위의 책, 같은 조

문이다.⁵⁶⁾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던 가운데 6월 18일 통제사 원균은 드디어 가덕도 방면으로 출전하였다. 원균이 출전하게 된 것은 자발적인 의지에서가 아니라 도원수의 계속적인 독촉과 도체찰사의 명령을 전달한 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남이공(南以恭)의 역할에 기인한 바가 컸다.⁵⁷⁾

조선 수군은 6월 18일에 한산도에서 발선하여 날이 저물자 장문포에서 밤을 보낸 후 6월 19일 아침 일찍이 학익진을 형성하여 안골포로 진격하였다. 조선 수군은 적선에 육박하여 교전을 벌였는데, 적은 배를 버리고 해안 위로 도망쳤다. 이에 조선 수군은 적선 2척을 노획하였다.

이어서 공격 대상을 가덕도로 향했는데 가덕도의 적은 이미 안골포에서 내원하다가 배를 타고 왜성으로 들어갔다. 우리 수군들이 추격하여 거의 모든 적선을 포착하기에 이르자 적들은 마침내 배를 버리고 섬으로 숨어들어갔다. 제장들이 포위하고 난사하였으나 그들 배만 빼앗았고 섬 안으로 들어가 찾아보았지만 종적을 찾을 수 없었다.⁵⁸⁾

이 해전에서 조선 수군의 피해를 보면 평산포만호 김축(金軸)이 눈아래에 탄환을 맞는 부상을 당했고, 그 밖의 하졸들은 중상을 입지 않았는데, 보성군수 안홍국(安弘國)이 철환을 맞아 전사하였다.⁵⁹⁾ 그러나 이 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승리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1명의 장수가 전사했지만 적선 다수를 노획했을 뿐만 아니라 아군의 피해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전과가 컸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안골포·가덕도 해전이라고 부른다.

세 번째 조선 수군의 부산 진공이 이루어진 것은 7월 4일~9일 간이었

56) 『宣祖實錄』 권89, 30년 6월 26일(乙酉)

57) 『宣祖實錄』 권89, 30년 6월 28일(丁亥)

58) 제장명, 「丁酉再亂 초기 朝鮮의 水軍政策과 부산근해 해전」, 『港都釜山』 24, 2008, 197쪽

59) 『宣祖實錄』 권89, 30년 6월 29일(戊子)

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골포와 가덕도에 출전했다가 한산도로 귀환한 조선 수군은 다시 출전하라는 상부의 명령에 따라 7월 4일에 출전을 단행하였다. 이때 통제사 원균의 전라좌수군은 출전하지 않고 경상우수사가 주 지휘관이 된 가운데 동급 수사들이 연합하여 부산으로 출전하였다. 그리하여 7월 5일에 칠천도에서 정박하고 7월 6일에 옥포에 들어갔다가 7월 7일 새벽에 발선하여 가덕도 남단의 말곶을⁶⁰⁾ 거쳐 밤에 다대포에 이르렀다. 이때 다대포에는 적선 8척이 정박해 있었는데 일본군들은 모두 육지로 도주하고 빈 배만 남았다. 조선 수군은 7월 8일에 빈 적선 8척을 분멸하고⁶¹⁾ 그 길로 부산 절영도 바깥 바다로 향하였다. 마침 적선 1천여 척이 대마도에서 건너와 이들을 공격하려했으나 일본 군선들은 흩어지면서 전투를 회피하였다. 이때 조선 수군 중 심한 파도와 조류에 휩쓸린 전선 7척이 서생포에 표류하여 대부분 일본군에게 살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⁶²⁾ 이러한 피해만 입고 귀환한 해전을 절영도해전이라고 부른다.

네 번째 조선 수군의 부산 진공이 이루어진 것은 절영도 해전의 영향에 따라 7월 12일~16일 간이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 근해까지 출전했던 조선 수군이 귀환할 무렵, 통제사 원균은 도원수 권율로부터 곤양으로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7월 11일 권율의 출전 독촉에 대해 원균은 장졸들이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고, 이미 장마가 시작되어 출항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마가 그치면 출항하겠다

60) 말곶은 가덕도 남단의 천성으로 소개하고 있다(李德悅, 『養浩堂日記』).

61) 당시 도체찰사 이원익의 보고에 의하면 적선 10여 척을 포획하였다고 하였음(『宣祖實錄』 권90, 30년 7월 14일(癸卯)).

62) 『亂中日記』 정유년 7월 16일 ; 『亂中日記』 정유년 7월 14일 기록에는 이 해전에서의 피해는 기록마다 차이를 보인다. 이를테면 이순신이 백의종군 중이던 정유년 7월 14일에 종사관 황여일을 통해 보내 온 김해인 김억의 고목에 의하면 7월 9일에 왜선 천척과 절영도 앞바다에서 싸웠는데, 조선 전선 12척이 피해를 보았다고 하였다.

는 뜻을 개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원균은 분한 마음을 안고 한산도로 돌아와 전 수군세력을 이끌고 출전하게 되었다.

원균은 7월 12일에 출전을 단행하였다.⁶³⁾ 당시 조선 수군의 출전항로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이곳의 조선시대 항로가 한산도-장목포진-칠천도-이물도-옥포-조라포-천성·가덕-절영도 전양이었던⁶⁴⁾ 점을 고려해 볼 때 7월 4일 출전 시의 항로와 비슷했을 것으로 생각된다.⁶⁵⁾ 따라서 7월 12일에 출전한 조선 수군은 그날 밤을 칠천량에서 지낸 후 13일에 옥포에 도착하여 이틀 밤을 보내고 14일 새벽에 옥포를 출발하여 가덕도의 말곶을 거쳐 부산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조선 수군이 일본으로 향하던 중에 일본군들은 조선 수군의 움직임을 알고 서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원균이 이끈 조선 수군이 부산 앞바다에 도착했을 때 마침 일본으로부터 약 1천여 척의 적선이 부산으로 오고 있었는데, 이를 본 원균은 적을 향해 아군 세력을 전진시켰다. 이때 일본 군선들은 조선 수군과의 접전을 회피한 채 흩어졌다. 원균은 이 틈을 타 일본 군선들을 공격하도록 지시하였다. 조선 수군은 일본 군선들을 쫓던 중 부산 앞 바다의 물마루[水嶺]를 넘어 외해 쪽으로 떠밀려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여러 배들이 풍랑에 일진일퇴를 거듭하였다.⁶⁶⁾ 위험한 지역에 도달한 사실을 깨달은 원균은 예하 세력에 후퇴를 지시하였다. 그 와중에 전라우수영 소속의 배 7척은 물길을 제어할 수 없어서 동해로 표류하여 갔다.⁶⁷⁾

63) 7월 14일에 출동했다는 연구 성과도 있다(이민웅, 『임진왜란 해전사』 청어람미디어, 2004, 201쪽). 그러나 당시 한산도에서 부산까지 진출하려면 하루 만에 갈 수 없다. 왜냐하면 전선만 해도 180여 척에다가 협선 등을 포함하면 300척 정도인데 이들이 출항과 입항하는 데만 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뿐더러 군은 일반 선박과 달라서 전투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 기항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64) 『增補文獻備考』35, 輿地考 23, 海路 1

65) 『亂中日記』 정유년 7월 16일 기사에 의하면 중 세남이 전한 당시 조선 수군의 출전항로는 한산도-칠천량-옥포-말곶-다대포-부산 절영도 외양으로 되어 있다.

66) 柳成龍, 『懲毖錄』 권2

조선 수군은 겨우 전선을 수습하여 회항하면서 밤새도록 노를 저어 15일 아침 무렵 가덕도 남단에 도착하였다. 이때 일본군은 기존에 있던 전선과 새롭게 합류한 전선을 합해 500여 척을 동원하여 추격해 옴으로써 조선 수군은 휴식을 취할 틈도 없이 이동하여 거제도 영등포로 물러나게 되었다. 이때 일본군은 우리 군사가 영등포에 도착하면 반드시 땀감과 물을 구하러 상륙할 것을 예측하고 전날 밤 빠른 배 50여 척을 영등포로 보내어 상륙시켜 매복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영등포에 상륙했던 우리군사 400여 명은 매복해 있던 일본군에 의해 참변을 당하고 말았다.⁶⁸⁾ 그런데 이와 다르게 가덕도에서 조선 수군 400여 명이 전사했다는 기록도 있다.⁶⁹⁾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기록을 채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원군은 갑작스레 당한 일이라 이들을 구할 생각도 못하고 칠천도에 후퇴하여 정박하였다. 조선함대가 칠천량에 도착할 당시에는 7월 15일 밤 9시경이었다. 그리고 결국 7월 16일의 칠천량해전에서 궤멸적인 패배를 당하였다.

67) 趙慶男, 『亂中雜錄』3, 萬曆 25년(정유년) 7월 16일조. 이 기록을 채택한 이유는 趙慶男은 당시 전라도에 있었지만 칠천량해전에 참가했던 선전관 金軾이 자신과 再從間이라는 언급을 통해 볼 때, 해전에 직접 참가한 金軾으로부터 해전의 전말을 들어서 『亂中雜錄』에 기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출정 경로부터 해전 경과까지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관련 내용 파악이 용이하다.

68) 위의 책, 같은 조.

69) 『宣祖修正實錄』권 31, 30년 7월 1일(庚寅)조에는 피해를 입은 조선수군 숫자 기록은 없고 다만 “밤이 깊어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우리 배가 사망으로 흩어지자, 원군은 남은 배를 수습하여 가덕도로 돌아왔는데, 사졸들이 갈증이 심하여 다투어 배에서 내려 물을 먹었다. 그러자 적이 갑자기 나와 엄습하니, 원군 등이 황급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고 급히 배를 이끌고 퇴각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다. ; 柳成龍의 기록에는 가덕도에서 군사 400명을 잃은 후 바로 칠천도로 이동하였다고 기술하고 있고, 원군이 도원수 권율에게 곤장을 맞은 시점도 칠천도에 도착해서였다고 기술함으로써 논지 전개가 흐트러지고 있다(『懲毖錄』권2). ; 德富猪一郎, 『近世日本國民史 豊臣氏時代』己篇, 朝鮮役(下卷), 1922, 461쪽에도 같은 내용이다.

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덕도는 임진왜란 초기와 강화기, 정유재란기를 막론하고 조선 수군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 곳이다.

임진왜란 초기에는 천성보만호 관할의 봉수대에서 일본군의 침입 사실을 확인 후 전쟁 발발 사실을 최초로 알린 지역이다. 그리고 경상우도의 최동단에 위치함으로써 조선 수군 작전 반경의 끝단에 위치하여 매출전 시마다 단초(端初)를 제공하였다. 이는 당시 부산을 포함한 경상좌도 지역은 일본군의 점령지로 간주하더라도 경상우도만큼은 지키려고 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상우도의 동쪽 경계지역에 위치한 가덕도는 자연스럽게 조선 수군 활동의 중심 목표지가 된 셈이다. 특히 임진년 마지막 해전인 부산포해전의 승리를 위해 조선 수군은 3일 동안이나 가덕도에 야박(夜泊)하면서 작전을 논의한 곳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부산을 치기 위해서는 가덕도를 선점해야하는 당위성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 강화기에 접어들어 남하한 대규모의 일본군이 경상도 남해안 포구와 섬에 왜성을 쌓고 주둔함으로써 가덕도도 일본군에게 장기 주둔의 대상이 되었다. 일본군은 가덕도 북쪽 지역에 왜성을 쌓고 진을 설치하여 근거지로 활용하였다. 조선 수군은 부산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 가덕도를 점령해야 하지만 강화교섭 기간이라는 이유 때문에 명군으로부터 일본군 공격이 제한받았다. 설상가상으로 조선 수군의 전력도 기아와 전염병으로 감소된 가운데 거제도 동쪽을 공격할 여력이 부족한 현실이었다. 가덕도는 점차 조선 수군의 목표지로부터 멀어져갔던 것이다.

정유재란이 발발한 이후에도 가덕도는 일본군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되었다. 일본군의 본진이 도해하지 않은 정유년 초기에는 조선 수군의

부산진공을 위해 가덕도는 공격대상이거나 경유지로 기능하였다. 이것은 총 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정유년 2월 중순에 있었던 통제사 이순신이 지휘한 부산진공작전 시 가덕도를 경유하였다. 나머지 3차례는 통제사 원균이 주도한 가운데 6월 중 안골포 및 가덕도 해전이 있었고, 이어서 7월초에 있었던 절영도해전과 7월 중순에 있었던 칠천량해전의 배경이 된 부산지역 해로차단작전이 그것이다. 4차례의 가덕도 경유 시 조선 수군은 어느 정도 피해를 입기도 할 정도로 이 시기 가덕도는 일본군의 관할 하에 놓인 상태였다.

특히 일본군이 본격적으로 도해한 정유년 7월 이후에는 일본군의 점령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만약 칠천량해전에서 패하지 않았더라면 가덕도를 탈환할 수도 있었겠지만 전쟁이 종료될 때까지 조선 수군은 더 이상 가덕도 쪽에 전력을 집중할 수 없었다. 결국 정유재란 시기 칠천량해전 이후 가덕도는 종전이 될 때까지 조선 수군의 활동 영역에서 멀어지고 말았다.

| 참고문헌 |

1. 사료

『高麗史』·『世宗實錄』·『慶尙道 地理誌』·『成宗實錄』·『中宗實錄』·『明宗實錄』·
『宣祖實錄』·『宣祖修正實錄』·『增補文獻備考』
柳成龍, 『懲毖錄』
吳希文, 『瑣尾錄』
尹行恁, 『李忠武公全書』
李肯翊, 『燃藜室記述』
李德悅, 『養浩堂日記』
李舜臣, 『亂中日記』
趙慶男, 『亂中雜錄』

『毛利家文書, 3』

2. 저서 및 논문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한국사』 22, 1995.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한국사』 29, 1995.

김강식·제장명 공저, 『경남의 임진왜란사』, (사)21세기이순신연구회, 2009.

김주홍, 『조선시대 봉수연구』 서경문화사, 2011.

류교열, 『韓半島 南海沿岸의 倭城과 그 築城 意味-가덕도 왜성지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14, 2002.

서치상, 『천성진성 조사보고서』, 부산광역시, 2011.

이민웅, 『임진왜란 해전사』 청어람미디어, 2004.

이수경, 『임진왜란 시기 이순신의 통제사 임명일자 검토』, 『이순신연구논총』 32, 2020.

제장명, 『丁酉再亂 초기 朝鮮의 水軍政策과 부산근해 해전』, 『港都釜山』 24, 2008.

제장명, 『이순신 백의종군』, 행복한나무, 2011.

제장명, 『임진왜란 초기해전 연구의 주요 쟁점 검토』, 『충무공 이순신과 한국해양』 3, 2016.

車勇杰, 『봉수』, 『한국성곽연구회 학술대회』(총서5), 한국성곽연구회, 2004

徳富猪一郎, 『近世日本國民史 豊臣氏時代』(己篇 朝鮮役 下卷), 1922.

투고일 : 2021. 05. 24. 심사완료일 : 2021. 06. 23. 게재확정일 : 2021. 07. 07.
--

| Abstract |

The status of Gadeok island during the Imjin war and the activities of the Joseon navy

Je, Jang-Myeong

Gadeok-do (do = island) is the easternmost island of Gyeongsang-U-do, and borders Gyeongsang-Jwa-do along with the Nakdong river. Historically, Gadeok island has served as a strategic choke-point, through which invading Japanese naval forces approaching the Korean peninsula must contend. In the 16th century during the Joseon dynasty, Japanese invasions became severe, leading to the Imjin war and in 1544 Gadeok-jin and Cheonseong-jin (jin = fortification) were installed and operated as Naval fortresses in this area to defend against Japanese invasions.

When the Imjin war broke out, Gadeok-do was the first to recognize the fact of the war and performed the function of front-line communication. In the wake of the Imjin war, Gadeok island was a central destination for the Joseon naval forces' activities, and was located on the waterway connecting Jeolla-do-Gyeongsang-do-(Gadeok-do)-Busan. Therefore, Gadeok island had an important status as the main target area for the Joseon naval forces' activities.

In this paper, the activities of the Joseon navy, centered on Gadeok island, are divided into the early period of the Imjin war, the Ganghwa (truce) period, and the Jeongyujaeran period (second Imjin war).

In the early days of the Imjin war, Gadeok-do Bongsudae (signal fire) was the first to announce the outbreak of the Japanese invasion. In addition, it was selected as a target for the Joseon naval forces' four battles and

became the background for numerous naval battles. In particular, for the victory of the Busanpo naval battle, the last naval battle in Imjin year, the Joseon naval forces were stationed on Gadeok island for three days to discuss operational plans.

After entering the period of the truce of the Imjin war, Japanese forces from Hanseong(漢城) to South Korea peninsula built a dwarf castle and stationed at the port and island of the southern coast of Gyeongsang-do, and Gadeok-do became the target of long-term presence by Japanese forces. The Joseon naval forces had to occupy Gadeok Island to advance to Busan, but due to the period of truce negotiations and the weakened power of the Joseon Naval Forces, Gadeok-do gradually moved away from the target of the Joseon Naval Forces.

Gadeok island in the early days of the outbreak of the second Imjin war(Jeongyujaeran), served as an intermediate port of call for the Joseon naval forces to advance to Busan in order to block the large-scale movement of Japanese forces. There were several naval battles on the coast of Gadeok island in the process of participating in Busan, but due to the dwarf castle built by the Japanese, it was not possible to achieve great results.

In this way, it was confirmed that Gadeok-do was recognized as a very important strategic position for both the Joseon navy and the Japanese during the Imjin Wars.

Key Words : Imjin war, Jeongyujaeran, Joseon navy, Gadeok island, Busan-po Sea battle, Gadeokwaeseong(加德倭城)

